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6. 10.(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용욱, 사무관 서지웅 ·☎ (044) 201-3875, 3879
	한국도로공사	담당자	·영업운영팀장 김용일, 차장 이민욱 ·☎ (054) 811-2230, 2271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.

-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에게는 별도 대책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이강래)는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(‘17.7.20., 이하 “정부 가이드라인”)」에 따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·용역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 조직성격 및 규모·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·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 -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‘노·사 합의(‘18.9.5일)’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, 전환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 방안을 검토·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- 한국도로공사는 ‘노·사 합의(‘18.9.5일)’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되,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고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6.10.월) >

- ◆ 수납원 정규직화 갈등 2년…勞勞 싸움장 된 톨게이트
- 도로공사가 자회사 만들어 톨게이트 직원 정규직 고용 나서자 노조선 “또 다른 외주업체일 뿐, 도공서 직접 채용해야” 반발



이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지웅 사무관(☎ 044-201-38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